



2023 IMPACT REPORT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공익활동가의 지속가능한 활동과 존중받는 삶을 위한 안전망”

가치있는 사회변화를 만드는 혁신조직의 그라운드

 **Brian
Impact** 가 함께 합니다



2023 IMPACT REPORT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공익활동가의 지속가능한 활동과 존중받는 삶을 위한 안전망”



이 임팩트 리포트는 (재)브라이언임팩트의 임팩트그라운드 사업에서 지원하는
사회혁신조직이 그리는 임팩트와 미래비전을 소개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발 행 처 (재)브라이언임팩트

발 행 일 2024년 4월

발 행 인 박승기

이 메 일 contact@brianimpact.org

홈 페이지 brianimpact.org

기획 및 제작 (주)한국사회가치평가

가치있는 사회변화를 만드는 혁신조직의 그라운드

임팩트그라운드

(재)브라이언임팩트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기부 선언과 함께 설립된 공익법인입니다.

기술이 사람을 도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특히 과학 기술 영역에서 기업이 접근하기 어려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임팩트그라운드는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내는 혁신조직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소셜임팩트 생태계를 응원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혁신가와 단체들이
건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는 터전을 만들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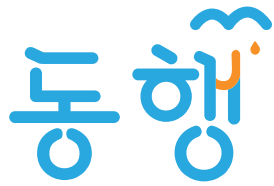
목차 Table of Contents

01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소개	1
	▶ 설립목적 및 미션 ▶ 연혁 ▶ 사업소개 ▶ 조합원 현황	2 2 3 8
02	동행이 만드는 가치	11
	▶ 임팩트 프레임워크 ▶ 임팩트 하이라이트	12 13
03	동행의 임팩트	15
	▶ 지원사업 만족도 및 필요수준 ▶ 동행의 강점 및 차별성 ▶ 동행사업 참여 후 변화 ▶ 동행에 대한 애정과 신뢰	16 18 19 20
04	동행이 꿈꾸는 내일	29
	▶ 공익활동가를 가장 잘 알고 존중하는 조직 ▶ 앞으로 또 10년, 동행의 과제	30 31
	부록: 인터뷰	35

01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소개

- ▶ 설립목적 및 미션
- ▶ 연혁
- ▶ 사업소개
- ▶ 조합원 현황

> 설립목적 및 미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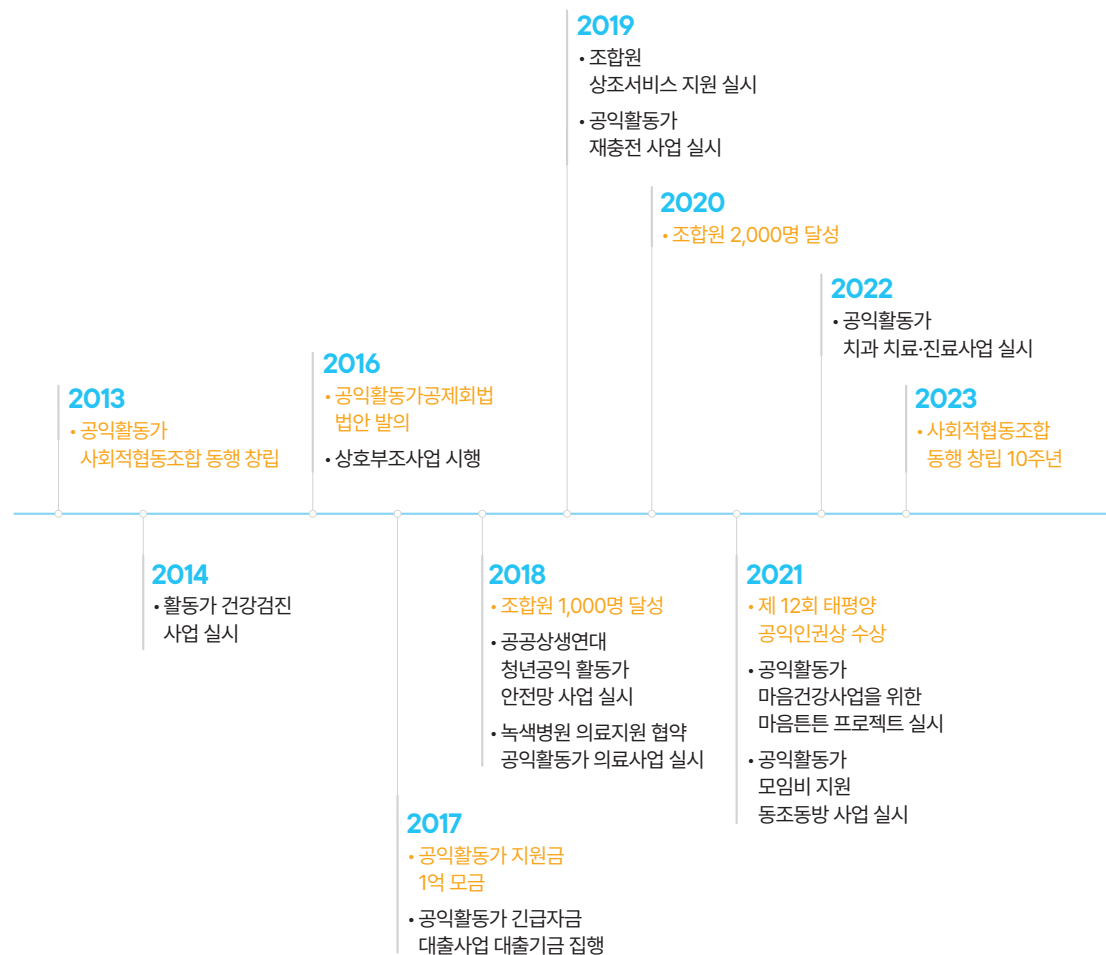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은 상부상조·연대·협동의 원리로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지속가능한 공익활동을 할 수 있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고자 창립되었습니다. 2013년 창립 시부터 1천여명의 조합원을 목표로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공익활동가 지원 조직으로서의 권위를 확보하고, 더 많은 활동가들에게 더 실질적인 지원과 더 큰 자부심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비전	공익활동가가 신뢰받는 사회
미션	공익활동가의 지속가능한 활동과 존중받는 삶을 위한 안전망 구축
핵심 가치	○ 공익활동가 중심 ○ 자조·자립 ○ 연대·협동

> 연혁

동행은 2013년 창립 이후 지속적으로 공익활동가를 위한 새로운 지원 분야, 대상 및 지원 방법을 모색해 왔습니다. 2014년에는 첫 사업으로 활동가 건강 지원사업의 초기 사업인 '건강검진 사업'을 시행했으며, 2016년에는 동행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상호부조 사업'을, 2017년에는 경제적 안전망 사업의 초기 사업인 '긴급 자금대출사업'을, 2019년에는 '공익활동가 재충전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 사업소개



✓ 상호부조기금 운영 및 상호부조사업

상호부조기금은 조합원들이 매월 납부하는 5천원의 회비를 통해 급작스러운 질병(암진단 후유장애 등) 진단에 대비할 수 있는 치료비를 지원하거나 경조사 비용, 생활비 지원 등 활동가의 생애사적 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활동가들이 서로 격려하고 돕는 연대 기금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활동가들에게 상호부조기금을 통해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의료 및 생활비 부담을 낮추었습니다. 특히 활동가들이 서로 돕는 상부상조기금으로 활동가들의 공동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공익활동가 경제적 안전망 기금

공익활동가들은 대체로 낮은 급여와 독립된 직군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은행 대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안전망 사업은 동행의 대표사업이자 활동가들로부터 가장 요청이 많은 사업입니다. 동행은 다양한 종류의 긴급자금대출 및 지원을 개발하여 조합원들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 소액대출, 긴급생활자금대출 및 든든 기금

긴급하게 필요한 생활자금이나 전세보증금, 누적된 가게 부채 등의 지출이 필요할 때 긴급하게 자금을 대출해 줍니다. 20대 이상 활동가를 위한 <긴급생활자금대출>, 사회적 지원이 거의 없는 40대 이상의 활동가를 위한 <든든기금>, 조합가입 만 24개월이 지난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을 실행해왔습니다.

1인당 최대 1,000만 원, 최대 36개월 원리금 균등상환, 연이율 3%(든든기금의 경우 1%)의 조건으로 활동가들이 긴급한 경제적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금운용과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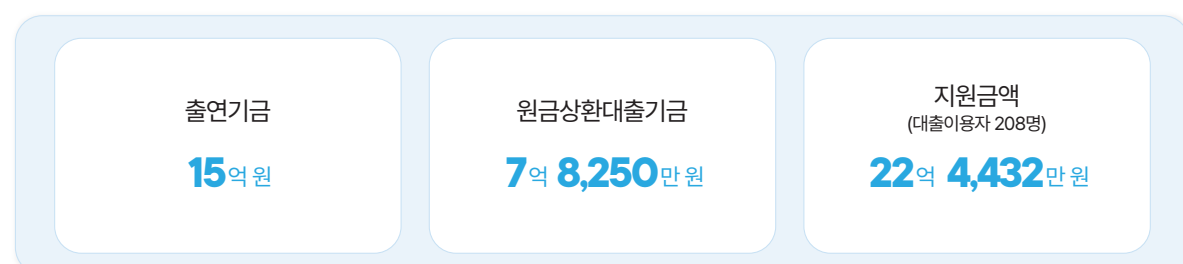


□ 공공상생연대 청년공익활동가 안전망 사업

학자금 대출로 청년의 삶을 시작하는 공익활동가들은 부채부담과 신용도 하락에 따른 생활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동행은 낮은 금리(연 1%)의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공익활동가들의 부채 부담을 완화하여 생활안정과 활동의 지속성을 높이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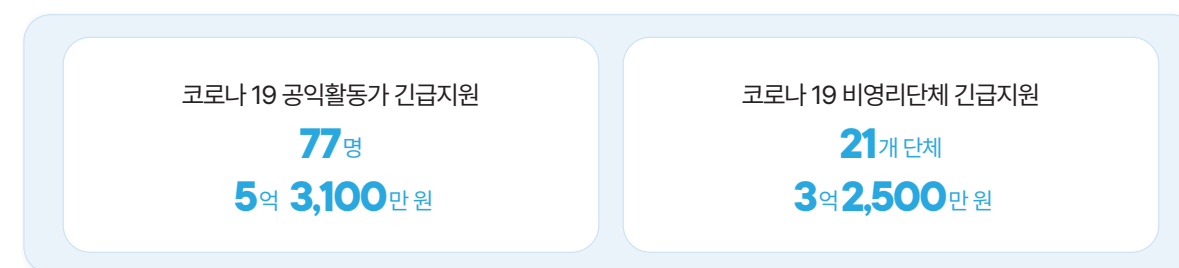
학자금 대환대출, 고이율 대환대출, 긴급생활자금, 의료비 대출 등 1인당 최대 2,000만 원, 최대 60개월 원리금 균등상환을 조건으로 하며 현재까지 총 22억 규모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지원을 받은 활동가들이 성실하게 상환한 원금을 모아 다시 활동가들에게 재대출하는 자원의 선순환 구조가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대안적인 자금운용모델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활동가들의 공익활동 책임감과 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비영리 영역 특별 용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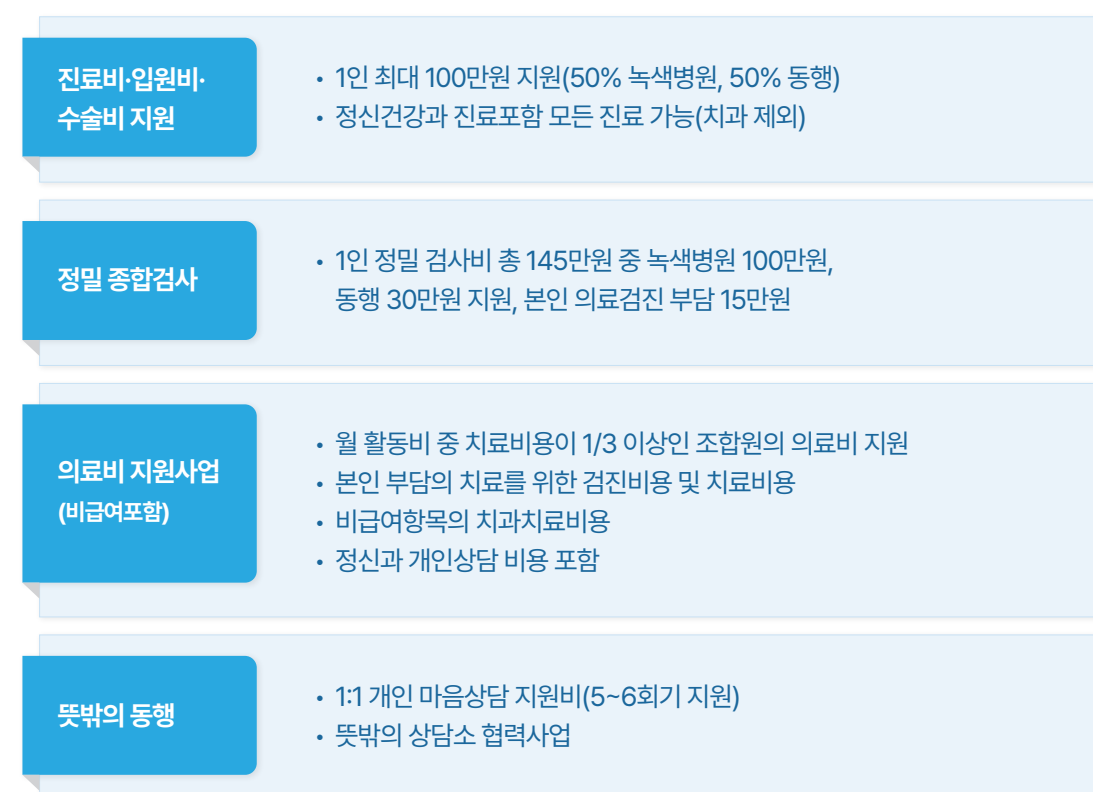
코로나19 상황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활동가들에게 특별 용자사업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전국의 비영리 단체 활동가들에게 1인당 최대 1천만 원까지 36개월 원리금 균등상환, 연 이율 1%의 조건으로 긴급생활자금 대출지원을 실행하였습니다. 또한 비영리 단체에도 고용유지 및 단체운동을 위하여 단체당 최대 2천만 원까지 개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지원을 했습니다.



✓ 공익활동가 건강기금 조성, 종합건강 지원사업(신체/마음 건강의료비 지원)

정밀검진, 진료 및 치료비 등 신체 질환 중심의 의료비 지원부터 마음 건강(정신 건강) 상담 지원 및 정신 건강 진료까지 지원함으로써 활동가에 대한 종합적인 건강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일 뿐 아니라 활동가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공익활동의 특성상 활동가들의 스트레스, 우울감 등 심리적 어려움은 일반 시민들에 비해 2~4배 높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음건강 상담지원을 통해 활동가들이 안정적인 정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공익활동가 재충전 지원

강도높은 공익활동 속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소진되는 활동가들에게 쉼을 통한 심신회복과 재충전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활동가 스스로 기획한 재충전 프로그램(여행)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부터 '땡땡이 학교'를 통해서 섬에서 쉴 수 있는 특별한 재충전 프로그램을 사단법인 꿈틀리와 협력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01. 땡땡이 학교를 소개해주세요!

신안 도초도에 위치한 섬마을인생학교에서 진행되는 섬 체험프로그램입니다. 섬마을에서 놀명쉬멍 여행하고 쉬어보며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행과 섬에 집중할 수 있는 8월팅과 마음돌봄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 9월팅이 있습니다.

*2023년 시행사업을 시작으로 진행하는 2022년 활동가 재충전 사업입니다. 섬마을인생학교를 운영하는 사단법인 꿈틀리와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Q. 어떤 분들이 신청하면 좋은가요?

- ☒ 그저 쉼-쉬고만 싶은 조합원님
- ☒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조합원님
- ☒ 이 카드뉴스를 보고 계시는 조합원님

02. 8월 프로그램을 소개해주세요!

• 섬마을 땡땡이/8.25(목)-27(토) •

“ 쉼을 가지면서 조금씩 굳어지던 몸과 마음에 바짝 에너지를 충전시키고 온 기분이 다, 혹시라도 주변에 갈까 말까 고민하는 이가 있다면 적극 추천하고 싶은 정도! ”

~ 2022활동가 땡땡이 학교 6월팅 활동가 후기 중에서 ~


시목해변 산책


섬에서 놀명쉬멍


해변요가


섬마을 음식 맛보기

<섬마을 땡땡이>는 섬에 더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입니다. 놀명쉬멍 섬마을 구경도 하며 자유시간 배치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자유시간에는 혼자 또는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가능한 활동으로 패들보트 타기, 바다 수영, 그림 그리기, 시목해변 및 해송숲길 산책 등이 있습니다.

*땡땡이의 섬마을소와 함께 합니다

상기 일정은 현지 기상상황 등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신청을 내 일정표를 참고하십시오.



재충전 지원사업 참여활동가
1,044명

재충전 지원사업 지원금
2억4,900만 원

✓ 공익활동가 교육지원

대학(원)에 진학 중인 활동가를 위해 학자금을 지원하고, 실무능력 강화를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는 등 활동가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활동가 자녀를 위한 학비 지원 사업을 통해 아이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활동가 학자금 지원사업

1인당 100만 원

자녀학자금 지원사업

중등 **30**만 원
고등 **50**만 원
대학 **100**만 원

활동가 역량강화 지원사업

**활동가가 신청한
역량강화 교육비 지급**

✓ 공익활동가 응원사업 '힘내라 활동가'

동행은 활동가의 사기진작과 일상케어를 위해 생일 등 기념일에 응원과 격려의 의미로 영화예매권, 전시관람권, 외식상품권, 무료숙박권 등을 지원(총 6,136회)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공익활동가를 응원하는 식탁, "공탁"을 운영하여 활동가 응원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활동가들이 직접 음식을 준비하고 다른 활동가를 대접하면서 상호 응원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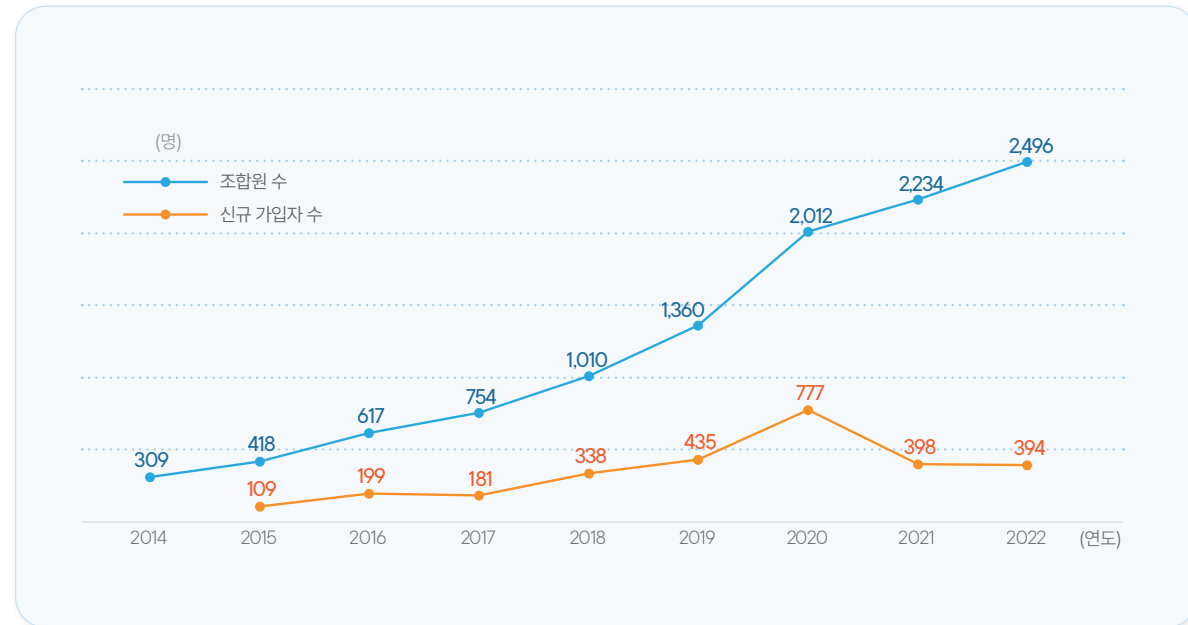
✓ 특별사업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가들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시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조합의 경계를 넘어 진행합니다. 비정규노동자 마음치유사업, 활동가 금융학교, 비영리 회계교육, 활동가 건강권 학교 등 특별사업을 통해 시민사회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동행

▶ 조합원 현황

동행 조합원 수



동행 조합원 수는 2014년 창립 이후 매년 꾸준하게 20~40%의 성장(조합원 수 확대)을 기록해오다 최근 2년은 10%대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도에 전체 조합원 수가 2,000명 이상을 달성하여 상당수 공익활동가들의 참여를 얻어낸 것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시민사회 전반에서 새로운 활동에 대한 참여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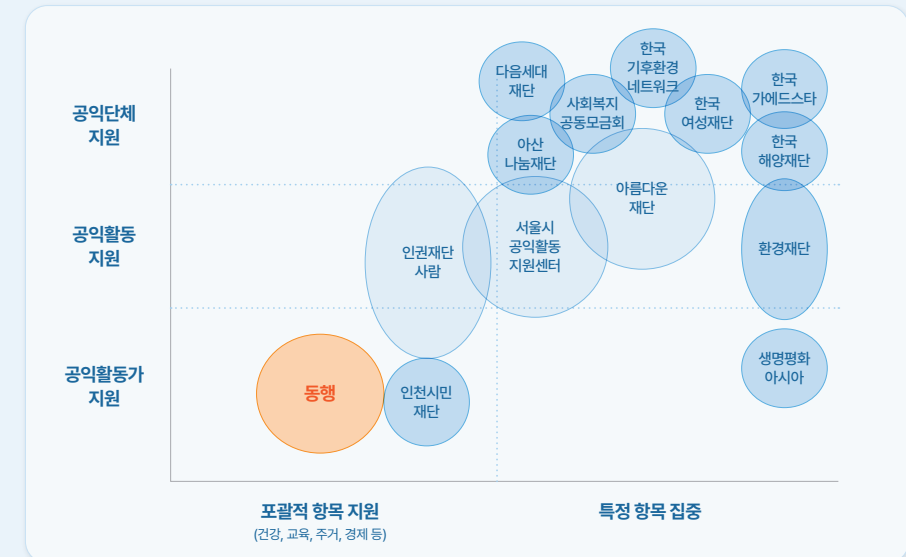
공익활동가에 대한 유일무이한 종합 지원 조직

공익활동 및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여러 조직의 지원사업을 조사하고 지원 영역과 대상을 구분하여 보았습니다. 동행 외 대표적인 공익활동 지원 조직으로는 아름다운재단,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인권재단 사람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사업 단위로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먼저 아름다운재단은 기부문화의 확산과 소외된 이웃 및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공익활동가 외에도 다양한 대상과 영역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8대 사업 영역 중 하나인 '사회참여영역사업'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시민과 공익단체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분야는 공익단체 역량강화로 성장초기 단체에 대한 인큐베이팅과 소규모 프로젝트 지원, IT 인프라 지원 등이며 활동가 모임 및 개인에 대한 활동 지원 사업도 운영 중입니다.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연결과 협력 플랫폼'이라는 미션 하에서 다양한 유무형 공익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연구 및 사례, 정보 조사를 수행하고 아카이빙을 통해 공익단체 및 공익활동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직접 지원사업으로는 비영리조직에 대한 지원(인큐베이팅, 조직 운영 지원)과 공익활동가 역량 강화 지원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021-2022년 지속가능보고서에 따르면 센터 사업의 중대성 측면에서는 NPO의 운영지원과 공익활동의 제도적 인프라 구축 분야가 높았으며, 향후 우선순위는 시민사회 정책 연구, 활동가 학습 플랫폼,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 사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권재단 사람은 '인권' 중심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합니다. 특히 인권 침해와 차별에 대응하는 프로젝트, 집회 및 토론회 활동 지원을 통해 법제도와 시민 인권 인식을 개선하는 활동이 대표적입니다. 인권 활동가의 지속가능한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한 재충전, 건강검진, 교육을 제공하는 점은 동행과 가장 유사하나, 동행의 경우 인권활동가를 넘어 공익활동가 전반을 대상으로 더 다양한 지원 분야를 포괄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타 기관들의 사업을 보면 대부분 공익단체에 대한 특정 영역에 대한 지원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기관이 공익단체 인큐베이팅 및 사업비 지원과 공익단체 실무자를 위한 역량 강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익활동가의 건강, 교육, 주거, 경제, 쉼 등 포괄적인 지원을 하는 곳은 몇 곳 없으며, 특히 해당 사업들을 모두 매년 지속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곳은 동행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행은 사람에 집중하여 공익활동가의 일과 삶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조직으로 차별화된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동행은 공익활동가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공익활동을 위한 사회적 지지 기반 마련에도 힘써 2014년에는 공익활동가 지원 조례를 추진하였고, 2016년에는 공익활동가 공제회법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동행의 이러한 노력은 외부에서도 인정받아 2021년 제12회 태평양 공익인권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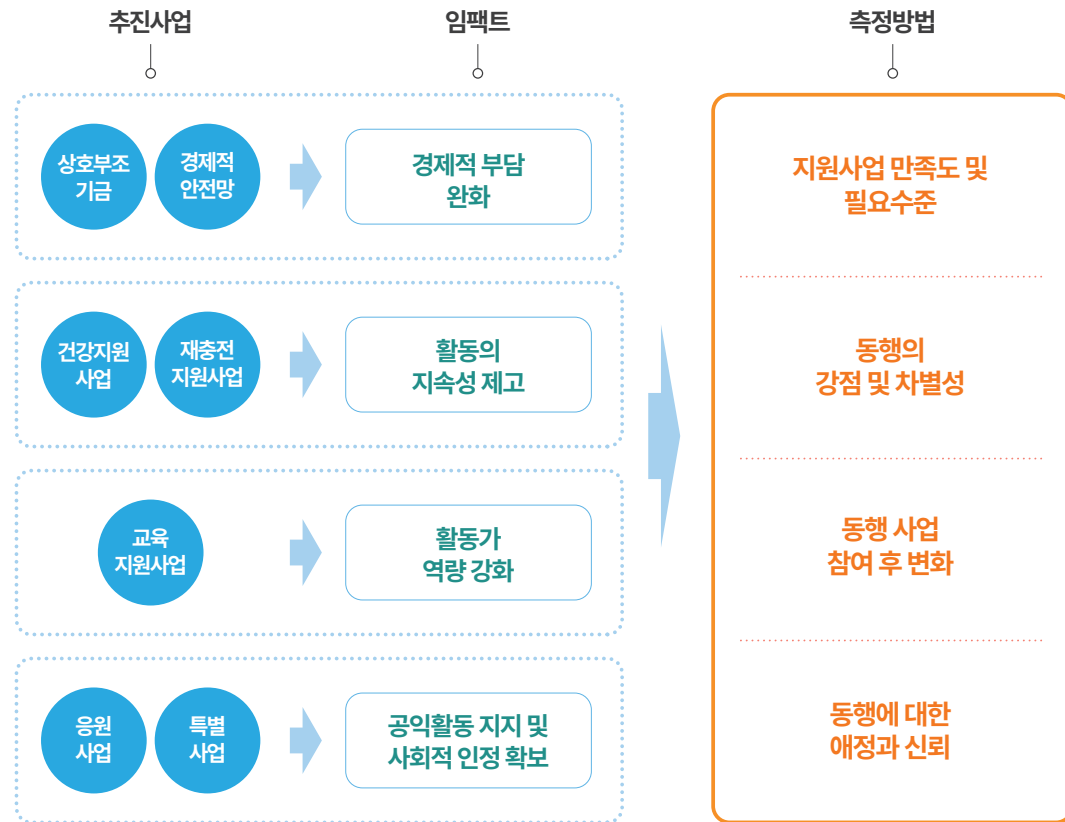


02 동행이 만드는 가치

- ▶ 임팩트 프레임워크
- ▶ 임팩트 하이라이트

> 임팩트 프레임워크

본 임팩트 보고서는 2013년 창립된 동행의 10주년을 맞아 공익활동가들의 지속가능성 현황을 파악하고 그동안 동행의 지원 사업들이 조합원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성과를 살펴보는 취지에서 작성되었습니다.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의 임팩트를 측정하기 위해 우선 사업 유형을 나누고, 동행의 사업 목표집단인 공익활동가들이 경험하는 지원사업의 만족도와 필요수준, 동행의 강점 및 차별성, 지원 참여 후 삶의 변화 그리고 동행이라는 조직에 대한 애정과 신뢰수준을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임팩트 측정을 위해 동행의 가장 핵심적인 이해관계자인 조합원 공익활동가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개요

조사기간	2023년 3월 20일 - 4월 5일, 17일간
조사내용	- 공익활동 현황 - 어려움, 만족도, 후회 여부 등 - 동행 참여 현황 및 만족도 - 일반 현황 - 활동 형태 및 조건
문항수	37문항
조사방법	고유 URL 발급을 통한 설문조사
응답인원	595명/2,295명

> 임팩트 하이라이트



2013년 4월 26일 설립된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은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시점을 기준으로 3,652일간 건강한 공익활동, 지속가능한 시민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습니다. 조합원 수는 2,496명이며 이 중 후원조합원은 52명입니다. 지난 10년간 지원사업에 참여한 조합원 수는 9,036명이며 약 51.5억 원이 지원사업에 사용되었습니다. 동행 조합원들의 동행에 대한 신뢰도는 9점(10점 만점)이며, 주변 지인에 대한 동행 추천지수는 9.25점(10점 만점)으로 매우 높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03 동행의 임팩트

- ▶ 지원사업 만족도 및 필요수준
- ▶ 동행의 강점 및 차별성
- ▶ 동행 사업 참여 후 변화
- ▶ 동행에 대한 애정과 신뢰

▶ 지원사업 만족도 및 필요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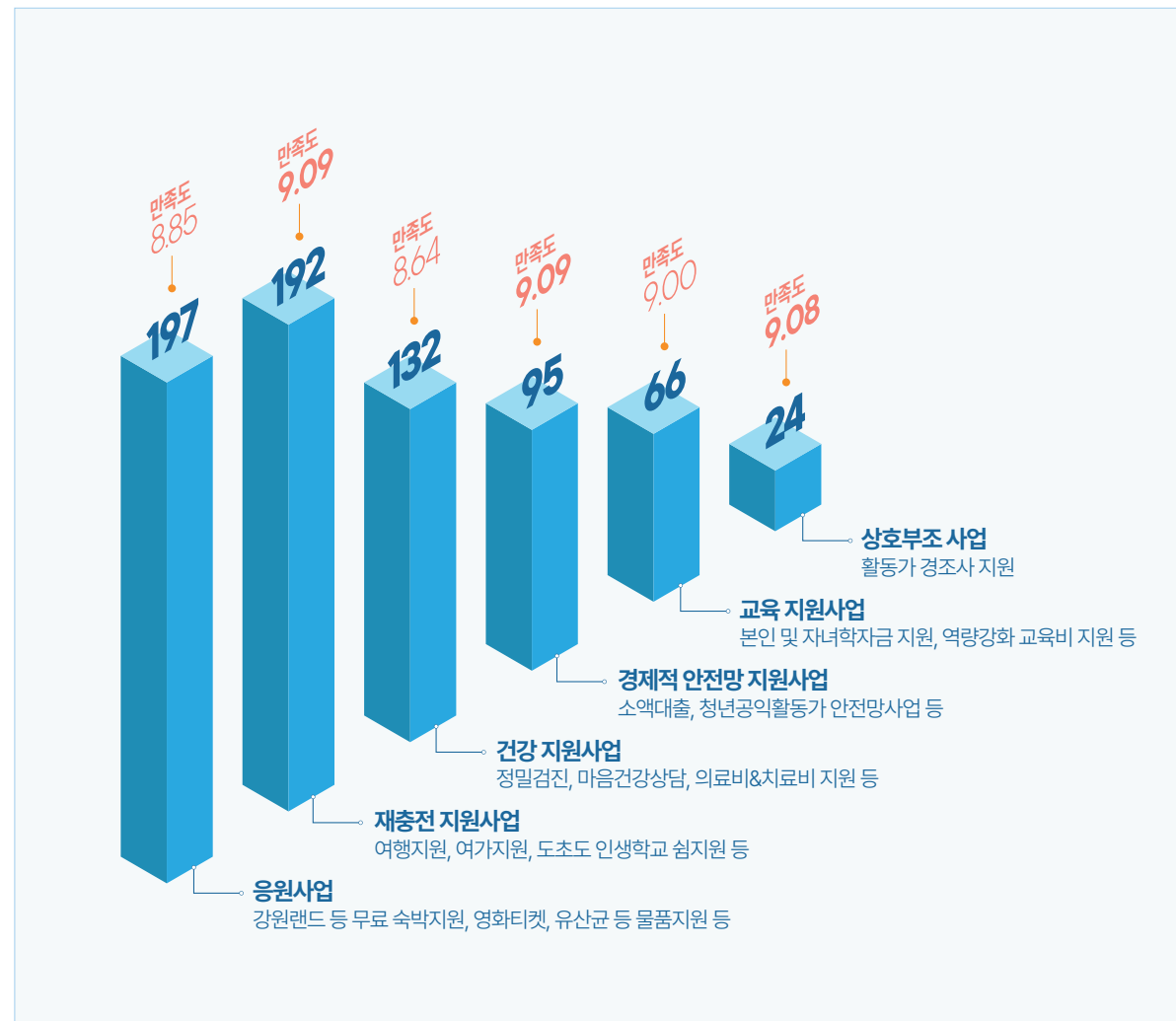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동행 지원사업 중 참여해본 사업은 '응원사업'과 '재충전 지원사업'이 가장 많았으며, '건강 지원사업, 경제적 안전망 지원사업, 교육 지원사업, 상호부조 사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원사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사업 만족도는 재충전 지원사업(9.09점)과 경제적 안전망 지원사업(9.09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호부조사업(활동가 경조사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9.08점)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경제적 안전망 지원사업의 경우 다른 사업처럼 비용 지원이 아닌 대출 지원임에도 생활에서 꼭 필요한 긴급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한다는 점이 조합원들에게 큰 지지를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활동가들이 활동조직의 상황에 따라 활동가의 직업이 인정되지 않거나, 낮은 소득으로 인해 기존 금융권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저금리로 일정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은 경제적인 부담 완화 뿐 아니라 사회적 인정과 지지를 느낄 수 있는 사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재충전 지원사업은 동행 배분사업 내에서 가장 오래된 사업 중 하나로, 쉼을 위한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조합원들에게 여행 및 문화여가 생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활동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공익활동을 위한 에너지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충전 지원사업은 예산 대비 지원할 수 있는 조합원 수가 많아 만족도와 더불어 효과성 또한 높은 사업으로 평가됩니다.

동행 지원사업 참여 경험 및 만족도

[N=595, 중복응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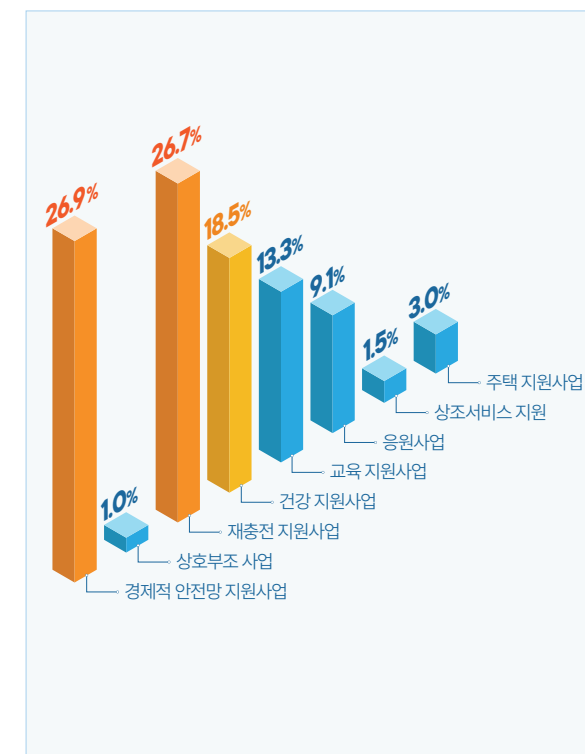
동행의 다양한 사업 중 '나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과 '공익활동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업'을 조사하였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사업으로는 '재충전 지원사업과 경제적 안전망 지원사업'이 비슷한 비율로 높게 나타난 반면, 공익활동가들에게 중요한 사업으로는 '경제적 안전망 지원사업'이 압도적으로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전체 응답자 595명 중 과반수에 가까운 조합원이 경제적 안전망 지원사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셈입니다. 공익활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응답자의 약 62%가 '낮은 연봉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낮은 복지 지원체계)'을 꼽은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경제적 안전망 지원사업의 규모(대상자 및 지원금액)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재충전 지원사업'의 경우 중요도 측면에서는 높지 않지만 지원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다른 사업에 비해 조합원들이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파악됩니다. 조합원 인터뷰에서도 재충전 지원사업을 통해 신혼여행을 가거나 바쁜 생활 속에서 휴식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할 수 있었고 동행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건강 지원사업'의 경우 필요성과 중요도 두 가지 측면 모두 높은 편이었습니다. 이전 문항에서 건강지원사업 대한 만족도는 다소 낮게 조사되었는데 주관식 응답을 살펴본 결과 파트너 기관인 녹색병원이 서울에 위치하여 지역 조합원 참여가 쉽지 않으므로 여타 지역병원으로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진료비 및 치료비 규모 확대에 대한 요청도 있었습니다. 조합원들의 관심과 니즈가 높은 사업이므로 이러한 부분이 반영된다면 동행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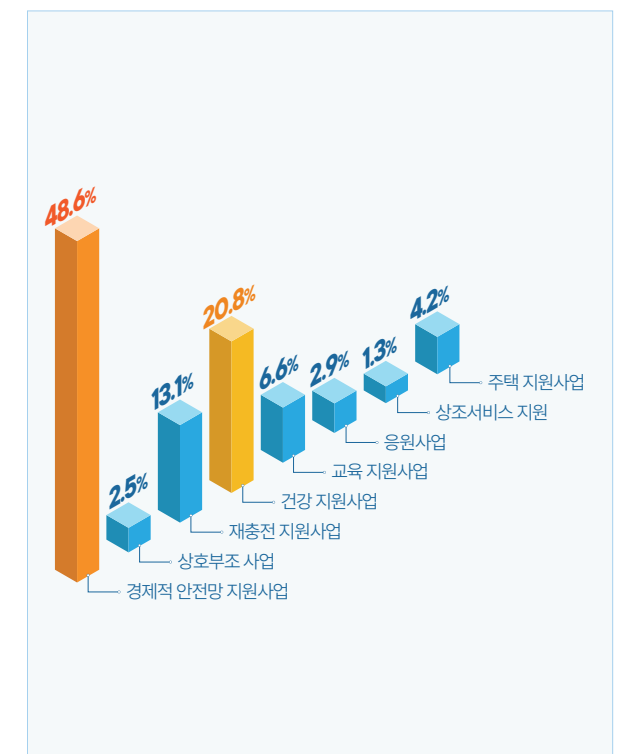
동행 사업 중 나에게 필요한 사업

[N=595, 단위: %]



동행 사업 중 활동가에게 중요한 사업

[N=595,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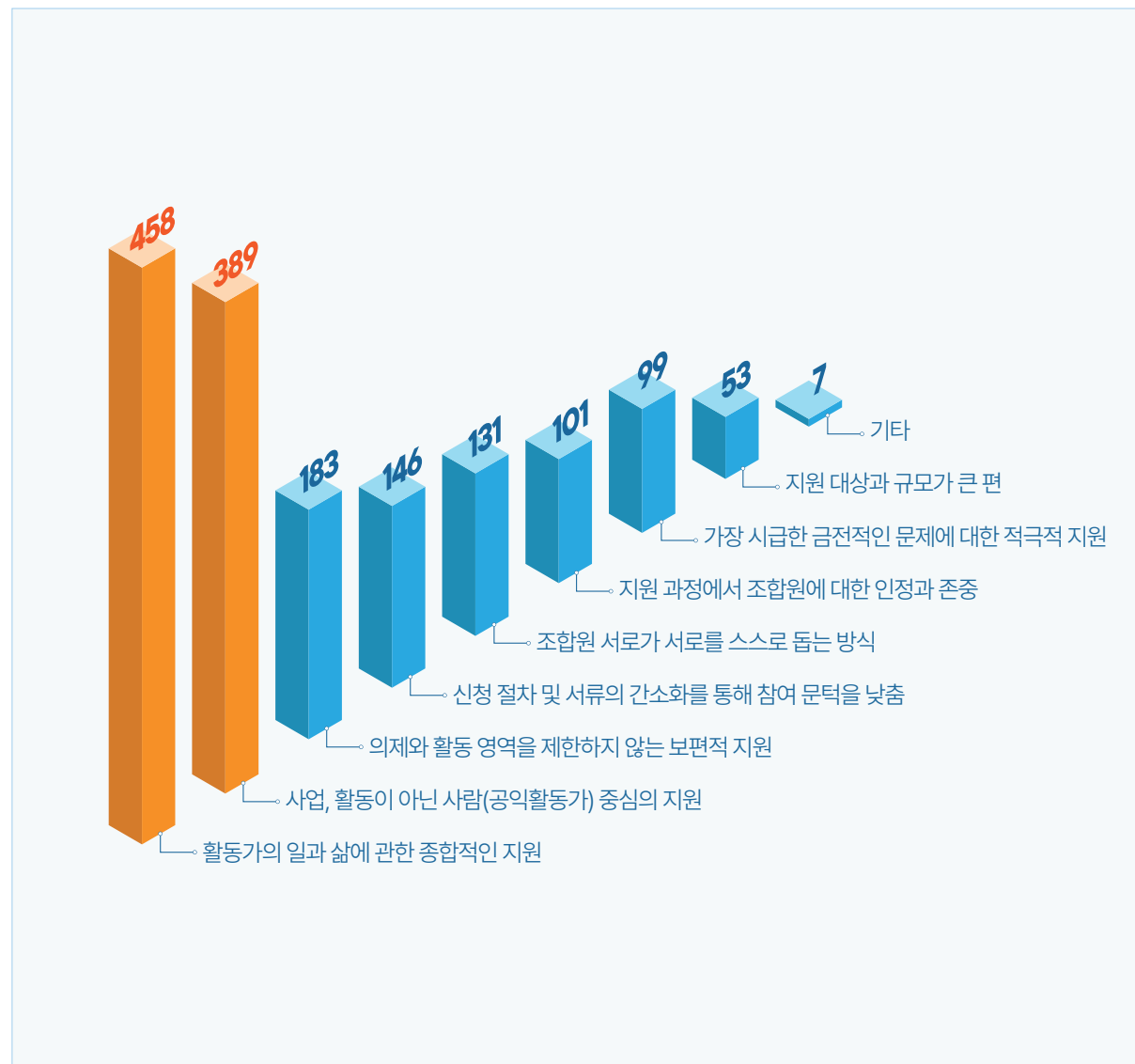
▶ 동행의 강점 및 차별성

다른 기관의 지원사업과 비교했을 때 동행이 가지는 강점과 차별성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활동가의 일과 삶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경제적 지원, 교육 지원, 건강 지원 등), 사업이나 활동이 아닌 '사람'(공익활동가) 중심의 지원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동행이 추구하는 '공익활동가'들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지원 대상을 특정 의제나 활동 분야(영역)로 제한하는 다른 기관과 달리 동행은 모든 분야의 공익 활동가들에게 열린 조직이자 보편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상호부조의 방식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지원함으로써 조합원들은 스스로가 지원받는 대상이면서도 동료를 지원하는 주체로 자부심을 느끼도록 운영되는 것이 다른 기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고유한 강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출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한 조합원은 '공익활동가가 공식 직업군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대출이 어렵거나 진행 과정에서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다'고 하며, 동행은 공익활동가를 가장 잘 이해하는 조직으로 지원 과정에서도 활동가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해준다고 응답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른 기관 지원사업과 비교했을 때 동행의 강점 및 차별성

[N=595, 중복응답 가능]



▶ 동행 사업 참여 후 변화

동행에 조합원으로 참여한 뒤 개인 및 공익 활동에 생긴 변화를 10가지 문항으로 질문하였습니다. 동행의 '특정 지원사업에 관계된 문항'과 '특정 사업에 관계되지 않는 보편적인 문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특정 지원사업의 경우 참여여부가 변화 정도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재충전을 통한 스트레스가 개선되었다'는 참여자와 미참여자 간 점수 차이가 100점 만점에 26점이었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가 개선되었다'는 22점의 상당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유관 사업의 참여자 변화 정도는 더욱 높아 경제적 안전망 지원사업 참여자의 1번 문항 평균 점수, 재충전 지원사업 참여자의 2번 문항 평균 점수는 각각 77점(100점 만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행 참여 후 가장 변화가 큰 항목은 공익활동영역 구성원으로서 만족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100점 만점에 67.2점으로 가장 높았고, 공익활동을 하며 사회적 지지를 느낀다는 응답도 66.9점에 달했습니다.

나와 같고 나를 잘 이해하는 공익활동가 조직이 존재한다는 점, 동행을 통해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조합원들에게 만족과 든든함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 참여자와 미참여자 간 평균 점수가 큰 차이 없어 지원사업과 무관하게 동행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만으로 개인의 삶과 공익 활동에 변화가 일정 부분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동행에 조합원으로 참여한 후의 변화

문항	동행에 조합원으로 참여한 후 나는~	* 0점 변화 없음 - 100점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조합원	사업 참여 경험이 없는 조합원
1	경제적 부담을 덜었다.	60.0	63.2	43.3
2	재충전을 통해 스트레스가 줄어들었다.	65.2	69.1	42.9
3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가 개선되었다.	60.0	63.5	41.1
4	가족, 또는 동료와의 관계가 개선되었다.	56.4	59.3	4.22
5	스스로 성장하고 역량이 강화되고 있다고 느낀다.	55.4	58.0	4.35
6	공익활동에 더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59.2	62.5	4.63
7	공익활동을 하며 사회적 지지를 느낀다.	66.9	70.0	5.78
8	공익활동영역 구성원으로서의 만족감을 느낀다.	67.2	70.2	5.87
9	공익활동가로서의 소속감이 생겼다.	66.2	69.4	5.72
10	공익활동가로서의 자부심을 느낀다.	66.3	69.2	5.79



▶ 동행에 대한 애정과 신뢰

사회적 안전망 지원조직으로서 동행 역할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7.84점이며, 지원사업 참여 경험자 평균은 8.11점으로 미경험자와 비교해 약 1점 정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주택 지원사업, 경제적 안전망 지원사업, 상호부조 사업, 재충전 지원사업 참여자 별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는데 앞서 사업 만족도가 높은 경우 본 문항에서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최근 많은 조직들이 만족도 점수보다 순고객추천지수(Net Promoter Score, NPS)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측정하는데, 동행의 만족도 점수를 순고객추천지수로 변환하면 18.2%으로 계산됩니다. 프레드 라이켈트의 저서 <지속적 성장을 위한 1등 기업의 법칙>에 따르면 기업의 평균 NPS는 5~10%로서 동행의 순고객 추천지수는 매우 우수한 편으로 해석됩니다.

사회적 안전망 지원조직으로서 동행 역할에 대한 만족도는 현재까지 동행 성과에 대한 칭찬과 격려 및 향후 동행의 사업 및 역할 확대에 대한 기대와 요구를 함께 반영한 점수로 판단됩니다.

공익활동가 사회적 안전망 지원조직으로서 동행 역할에 대한 만족도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동행 역할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 7.04점으로 나타났고 지원사업 참여자 평균은 7.21점으로 전체 평균보다 약간 높았습니다. 사업별로는 주택 지원사업, 경제적 안전망 지원사업, 상호부조 사업, 재충전 지원사업이 높아 사업 만족도와 동일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만족도 점수에서 7-8점은 중립적인 점수이며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동행 역할에 대한 만족도가 다소 낮게 나타난 점은 동행이 앞으로 출자 확대, 조합원 교육 등의 기능을 통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서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과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만족도 조사에서 질문하는 방식인 동행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아니라 특정 역할에 대한 만족도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만족도와 비교해 평균 점수가 다소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동행 역할에 대한 만족도





동행에 대한 신뢰도는 전체 평균 9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지원사업 참여자 평균은 9.17로 역시 전체 평균보다 다소 높았습니다. 특히 사업별로는 상호부조 사업 참여자 평균 점수가 9.4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동행의 대표적 사업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상호부조 방식이 조합원 상호 간, 그리고 동행이라는 조합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동행에 대한 신뢰도



동료 활동가에게 동행의 참여를 추천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은 9.25점으로 매우 높았으며, 지원사업 미참여자의 평균 점수도 8.73으로 높은 편이었습니다. 사업별로는 주택 지원사업, 상호부조 사업, 경제적 안전망 지원사업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조합원들에게 동행이라는 조직이 주변 공익활동가들에게도 알리고 가입시키고 싶은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은 개인적인 만족도 점수보다 지인 추천지수의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변사람에 대한 동행 추천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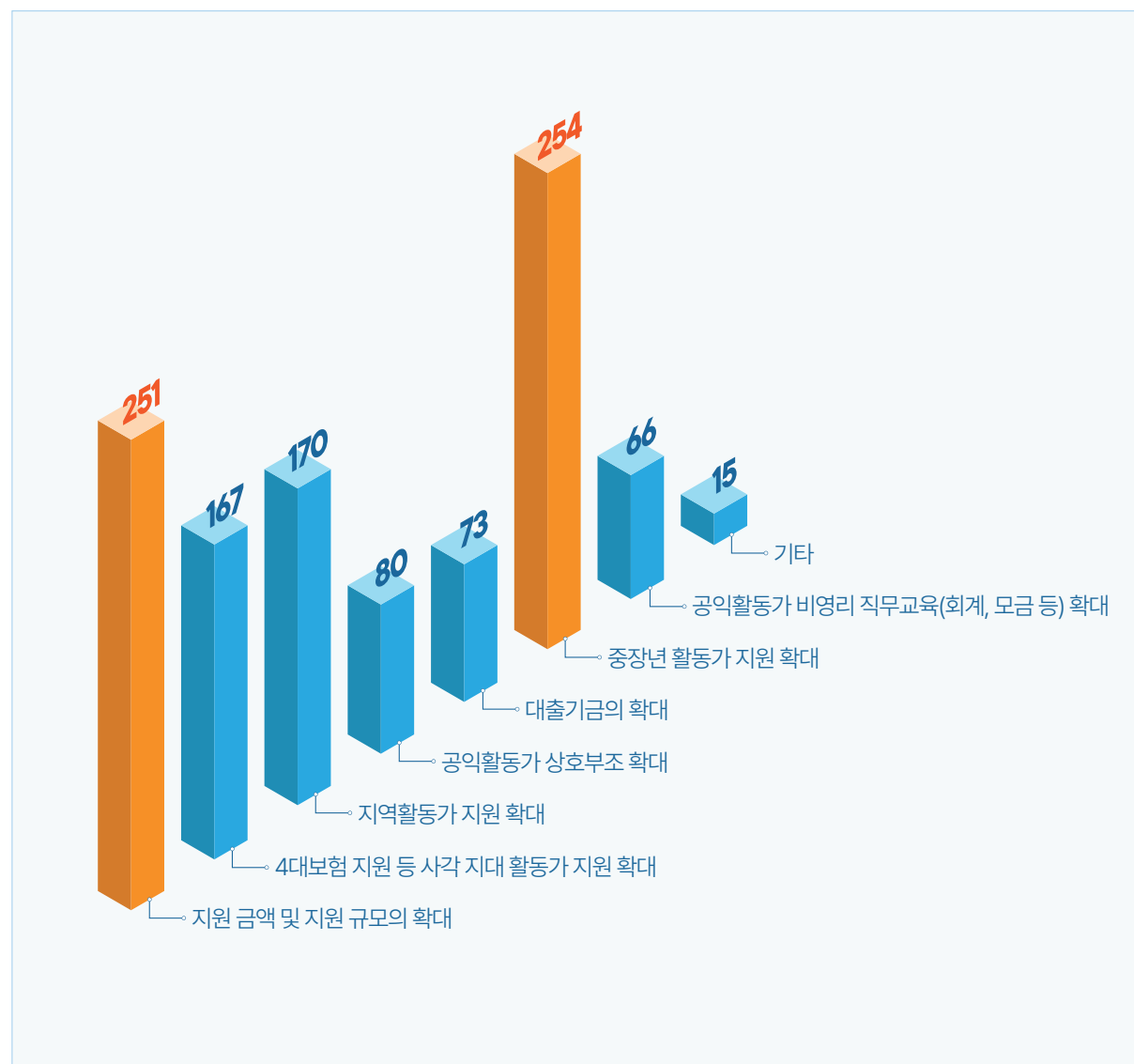


동행의 사회안전망 사업에서 강화를 희망하는 부분은 '중장년 활동가 지원 확대'와 '지원 금액 및 지원 규모의 확대'가 가장 높았으며, '지역활동가에 대한 지원'과 '사각지대 활동가 지원'에 대한 응답도 다수 있었습니다. 주관식 문항에서도 조합원들은 절대적인 규모의 확대(지원 대상, 개별 지원 금액)를 우선적으로 희망하였으며, 현재 수도권·청년 중심의 지원사업이 확산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기타 답변으로는 '조직문화 개선 프로그램, 활동가 임대주택과 같이 주거 관련 장기 비전을 갖춘 지원, 노후 및 간병 영역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동행의 사회안전망 사업에서 강화되어야 하는 것

[N=595, 2개 응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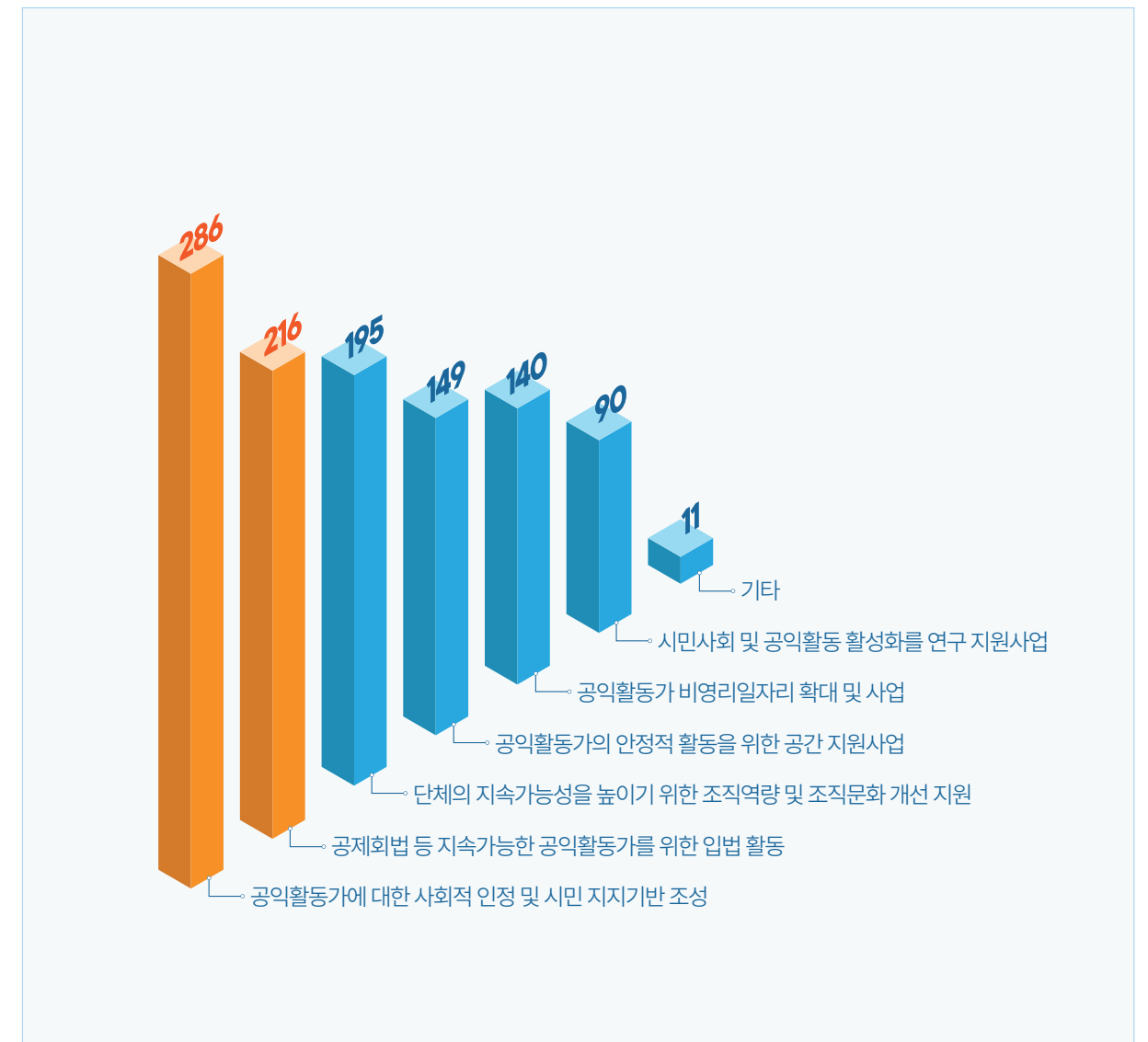


동행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 외에 장기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공익활동가에 대한 사회적 인정 및 시민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것'과 '공제회법 등 지속가능한 공익활동가를 위한 입법 활동'이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조합원들은 조직에 대한 지원이나 연구 지원사업보다는 활동가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과 특히, 공익활동가에 대한 사회적 인정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인정이 공익활동에 대한 존중, 공익활동가에 대한 정당한 보상, 성장과 배움을 위한 교육 기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공익활동가에 대한 인정을 무엇으로 보고 지원 방식을 구축해갈 것인가가 동행의 다음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타 응답으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원사업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답변이 많았으며, '조합의 공동자산을 쌓아가는 것, 은퇴 활동가에 대한 지원 사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행의 사업 외에 장기적으로 필요한 지원

[N=595, 2개 응답 가능]



공익활동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동행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서술형으로 답변 받아보았습니다. 조합원들이 동행에 바라는 점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반영시키는 것, 그리고 동행의 활동과 성과들을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인지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익활동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동행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서술형)

“
동행 조직
규모의 확대
”

- 지원 금액과 대상자 수 확대
- 동행을 알리고 조합원 확장을 위한 홍보 강화

“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한 지원사업
”

- 청년 활동가들이 비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
- 공익활동가들도 갈수록 연령대가 높아지기 때문에 중장년층에 맞춘 사업 필요
- 활동가의 은퇴 후 노후를 대비한 사업 (연금, 요양 및 간병영역)

“
수도권 외 지역으로의
지원 확대
”

- 건강, 의료 지원을 지역병원으로 확대
- 지역활동가들에 대한 지원 (교육, 조직문화 관련 지원 등)
-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지역 활동가들에 대한 지원

“
공익활동가
네트워크
”

- 조합원들이 모이는 자리를 통한 소통 네트워크
- 서로 다른 영역, 분야의 활동가 네트워킹
- 활동가 멘토링을 통한 관계망 구축 및 정신적 지지

“
다양한 사업 강화에
대한 의견
”

- 대출 및 경제적 지원
- 의료 및 심리 지원 강화
- 교육 및 역량 개발 지원
- 여가 및 소소한 이벤트
- 공익활동가 처우 및 복지 증진

‘동행은 나에게 ‘OO’다’라고 한 단어로 표현해달라는 요청에 조합원들은 다양한 답변을 보여주었습니다. 해당 단어들을 다음 그림과 같이 워드 클라우드로 나타내었고 몇 가지 유형으로 그룹화해 보면 동행은 조합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존재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동행은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나를 보호해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워드 클라우드에서 가장 큰 글자들을 보면 '버팀목, 울타리, 언덕, 안전망, 보험' 등으로 내가 어렵거나 힘들 때에 도움을 주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동행이 이루고자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조합원들에게 잘 작동하고 인정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친구, 벗, 동행, 동반자' 등의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나를 잘 이해하고 함께 해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공익활동가 서로가 서로를 돕는 상호부조 방식을 통해 공익활동가들과 같은 고민을 나누고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지원해주는 조직으로 동행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기본소득, 비타민, 필수, 숨통'과 같이 가장 기본적인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입니다. 끝으로 '희망, 미래, 바램, 응원' 등의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동행은 공익활동가들의 앞으로의 비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행이 지난 10년간 공익활동가의 삶과 공익활동을 지원해 온 것처럼 앞으로의 10년도 공익활동가들의 지속가능성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활동가들을 응원하고 희망이 되는 조직으로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나에게 동행은 OO다’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Made In Wordcloud.kr

04 동행이 꿈꾸는 내일

- ▶ 공익활동가를 가장 잘 알고 존중하는 조직
- ▶ 앞으로 또 10년, 동행의 과제



▶ 공익활동가를 가장 잘 알고 존중하는 조직

임팩트 측정을 위해 만났던 한 조합원은 '동행은 모든 대상 및 관련된 주체들이 활동가들이기 때문에 나에 대해 잘 모를 거라는 의심이 들지 않고, 오히려 내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할 거라는 믿음이 든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활동가들이 공익활동이나 일상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괴리나 어려움을 동행이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활동가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 사업을 제공해 줄 거라는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활동가 기초 안전망 사업에 참여했던 4박 5일간의 일정이 인생에 있어 큰 전환점을 만들어 주었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같이 공익활동을 하는 동료들을 만나서 서로 사정을 듣고 공감하고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었고, 의욕이 넘치는 활동가들을 보며 앞으로도 계속 세상을 바꾸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며 살고 싶다는 의지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하며 이런 프로그램은 동행이 활동가들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기획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설문조사에서도 '내가 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주거관련 비용과 관련사업을, 의료나 장례 관련 영역의 필요성을 느낄 때는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든든한 뒷배', '활동가가 중심에 있는 조직', '함께 연대한다는 느낌을 받는 곳' 등과 같이 공익활동가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동행 활동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동행은 활동가들에게 필요한 지원 내용과 방식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함께 논의하기 때문에 공익활동가에게 꼭 필요한 순간에 시의 적절한 지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호부조를 근본으로 하는 동행의 운영방식을 통해 스스로 돕는다는 자부심과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공익활동가를 가장 잘 이해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동행의 가장 큰 강점인 공익활동가에 대한 이해와 존중 기반의 운영 방식이 지속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 앞으로 또 10년, 동행의 과제

2022년 동행의 조합원은 2,436명으로 단일 조직의 조합원으로는 많은 인원이 가입되어 있으나, 조합원들이 희망하는 지원사업 대상 및 지원 규모의 확대를 위해서는 더 많은 조합원을 확보하여 출자금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규모의 확장이 당연한 과제이자 우선되는 목표입니다. 특히 수도권 외 지역 활동가의 가입 비율이 낮은 편이므로 지역 단체에 대한 가입 독려와 더불어 지역 조합원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을 해 나갈 것입니다. 사업 영역에 대한 확장보다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각 사업별 규모와 대상의 확장으로의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것을 기대합니다.

설문조사 결과, 수요가 많은 사업 중 하나는 중·장년 및 은퇴 이후에 대한 지원이었습니다. 현재 동행 조합원 중 은퇴 연령에 해당되는 60대 이상은 4%에 불과하지만 50대를 포함시키면 비율은 43%까지 상승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화로 인해 점차 연령대가 높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중장년층과 은퇴 이후 활동가 노후에 대한 지원이 동행의 주요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익활동가 간의 소통과 연결을 위한 역할을 조금 더 강화하는 방향을 고민하고자 합니다. 동행의 지원 워크숍에 참여했던 조합원의 경우 워크숍을 통해 같은 고민을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친구들을 서른 명이나 사귄 수 있었고 몇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친분을 유지하며 소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공익 활동가들의 대나무숲 역할을 동행에서 담당하길 희망하는 조합원도 있었습니다. 공익활동가 대부분이 동일한 상황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직장에서는 마음을 터놓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활동가 동료의 중요성은 더욱 큰 것으로 생각합니다.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만나본 동행의 조합원들은 동행에 아낌없는 신뢰와 애정을 표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동행이 조합원들의 믿음을 기반으로 조합원의 성장과 지속가능한 공익활동을 함께하는 안전장치로서 역할을 잘 수행해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동행

동행

부록: 인터뷰



Interview: 변화를 만드는 혁신가들

임팩트 측정을 하면서 사회혁신조직의 활동과 조직 운영, 성과 등을 확인하기 위해 홈페이지, 연간보고서, SNS, 뉴스레터 등 다양한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는 이야기는 사회혁신조직 안과 밖에서 변화를 만드는 혁신가들의 목소리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임팩트 리포트를 기획하며 만났던 혁신가들의 임팩트에 대한 생각,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합니다.

Behind 'The Impact Report'

인터뷰이: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여진 사무처장

Q.

임팩트그라운드에서 참여하는 사회혁신조직의 임팩트 리포트 제작 프로젝트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동행의 임팩트를 측정한다고 했을 때, 처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A.

동행은 공익활동가들의 사회경제적 안전망을 위해서 활동가 개인의 삶과 활동 기반을 지원하는 조직으로써, 그러한 활동이 '임팩트 측정이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임팩트 측정'의 경험이 없었고, 활동가를 지원하고 기반을 구축하는 활동에 대한 '성과'가 직접적인 결과물로 산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Q.

측정이 어려울 것 같았던 '활동가 지원을 통한 임팩트' 측정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조사를 진행했지요. 임팩트 측정 과정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A.

그동안 동행은 활동가들의 삶과 활동에 대한 지속가능한 지수 혹은 활동 조건에 대한 설문조사를 꾸준히 진행해 왔지만, '동행' 조직에 대한 조합원, 활동가들의 생각을 조사한 것은 이번 설문조사가 처음입니다. 이 과정에서 동행에 대한 신뢰와 동행의 장점을 듣게 된 것, 특히 동행의 장점에 대해서 다른 지원 조직과는 다르게 활동가의 삶과 활동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이 넓은 점, 그리고 활동가 개개인을 지원하는 차별성이라고 결과가 나온 점이, 동행 조직의 미션이 잘 실현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Q.

이번 임팩트 측정의 경험과 결과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싶으신가요?

A.

동행의 활동가 안전망 지원 사업이 활동가들의 삶과 활동에 어떠한 변화를 주고 있는 지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변화 척도와 지표들을 만들고자 합니다. 활동가를 지원하고 안전망을 좀 더 촘촘히 하는 것이 사회 변화와 가치에 기여하는 일임을 기업/재단 등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협력 단위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콘텐츠로 활용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활동가 지원의 필요성과 재원이 풍성해졌으면 합니다.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은 이번 임팩트그라운드 사업을 통해 그동안의 성과를 정리하는 임팩트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임팩트를 정의하고 구조화하며, 변화의 정도를 측정 및 분석한 경험은 동행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향후 본 보고서가 동행이 임팩트를 창출하고 확장하는 데 디딤돌로 활용되어, 더 깊고 풍성한 임팩트로 연결되기를 기대합니다.

후원 및 조직 안내

“활동가와 동행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주세요.”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68 호은빌딩 3층(동숭동, 호은빌딩)

대표전화 02-831-6880

대표메일 donghang@activistcoop.org

홈페이지 activistcoop.org